

# 오신환 호프타임 제안... 얼음정국 녹일까

### 바른미래 원내대표 민주당 예방... 이인영 "좋다" 화답 나경원 '밥 잘 사주는 누나' 약속... 3당 '몰밀 협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경색된 정국이 '출구'를 찾는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하면서 "(이 원내대표가)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호프타임'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평장지 좋다"며 흔쾌히 화답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면, 오 원내대표는 거꾸로 이 원내대표에게 '맥주 잘 사주는 형'이 돼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 (이 원내대표가) 호프 잔을 빨리 사준다고 한다"며 "둘이서는 만날 수가 없고 나 원내대표에게도 제안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견상으로 3자가 허심탄회하게 화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제안해 12일 전격 만찬 회동을 열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일단 물꼬가 트인 상태다.

오 원내대표의 구상대로 이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가 모두 함께 하는 '호프타임'까지 성사된다면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이의 기류는 한층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 중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당사자인 오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서 대화를 추진한다면 여야 간 쌓인 앙금과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오 원내대표의 '호프타임' 제안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사이의 몰밀 협상 움직임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의 그림까지 그려지지 않았지만, 3당 원내사령관의 교체는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3자 회동을 조만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

원내대표와) 빠르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를 제대로 잘 열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한다면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향후 논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해·민생 추경 동시 처리,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사와 요구, 바른미래당의 민주당 사과의 한국당 무조건 국회 복귀 주장 등이 얽혀 있어 이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를 감안할 때 의미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문무일 "수사권 조정 민주원칙 반해" 기자간담회 열고 반대 재확인... "공수처 보완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반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어된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분리'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립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을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다.

/연합뉴스

# 손학규 "퇴진은 없다"

###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표명 당내 압박 정면 돌파 의지 바른미래 내홍 2라운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의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의 국회 대표를 뽑는 선거였지만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으며, 전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당헌·당규에 따라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전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바른정당계의 오신환 의원이 자신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孫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사퇴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위원회·총선전략기획단 등 새로운 기구의 출범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현재 공석 상태인 당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즉시 당 내부인사를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주가 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명칭은 혁신위원회가 아니라라도 제2 당장위원회가 됐던 무엇이든 좋다"며 "평당원,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 위원회에

당헌·당규가 허락하는 최대한의 전권 부여하여 혁신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선전략기획단을 가동하겠다"며 "전략기획단은 외부 전문가와 당내인사를 균형 있게 구성해 총선전략 조기에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대표는 '안철수+유승민' 연합세력의 현 지도부 퇴진 압박을 '양당 체제 복원 움직임'이라고 규정,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체제로 복원하

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며 "국민이 만들어주신 중도개혁정당 바른미래당이 수구 보수세력의 손에 허망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유시민·홍준표 '낮술 입담대결'

### 내달 3일 유튜브 공동방송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TV홍카롤라'가 추진 중인 유튜브 공동방송이 내달 3일 낮술을 먹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방송의 MC를 맡게 된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는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월 첫 번

째 주 월요일(3일)로 결정되어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교수는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의 '케미(케미스트리·조화)'를 묻는 말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둘 다 스타일상으로 고독한 늑대"라며 "항상 '정치를 할 거야? 말 거야? 도지사할 거야? 당 대표로 운영할 거야? 대통령 후보가 될 거야?' 이런 경계선상에서 댄스하면서 해내는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 정기라운지

# 국회 도서 500권 광주 화정동 작은도서관에 기증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율) 국회의원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500권을 광주서구 화정4동 작은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회도서관은 화정4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 천정배 의원,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박정환 서구 부구청장, 김옥수 서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열고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천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기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서 확

충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 게이즈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허버드 졸업자보다도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말했다"면서 "서구 주민들이 기증한 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와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566-9988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J2 5 point 2 7 0 2 1 4 0 0 2

J1 4 point 0 1 1 7 2 9 0 0 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0 0 0 0 0 0 0 0 0 0 0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